



최근 돼지고기·채소류 가격 안정세, 추석 성수품 수급관리에 만전

< 보도 주요 내용 >

8월 25일(화) 연합뉴스 「집에서 구워도 4만원 넘어...삼겹살 밥상물가 12% 경충」 기사에서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상반기 삼겹살 1인분 상차림 재료비가 10,191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 상승하고, 4인 가족 기준으로는 4만 원을 넘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은 16개 광역지자체의 유통업체(백화점·대형마트·슈퍼마켓·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신선·가공식품 등 생필품 판매가격을 격주로 조사하여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삼겹살, 상추 등 신선 농축산물의 경우 조사 대상 유통업체 수가 많지 않고, 조사대상 중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백화점의 비중이 높아 실제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참가격 품목별 가격 정보를 확인한 결과, 올해는 전년보다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비중이 감소한 반면 백화점 비중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삼겹살 상차림 비용의 상승 폭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매일 조사하여 제공하는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삼겹살 상차림 비용은 7,082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상승에 그쳤으며, 4인 가족 기준으로 28,328원 수준입니다.

* 쌈장은 KAMIS 조사 대상 품목이 아니므로,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조사결과 인용

다만, 최근에는 도매시장 출하 확대 등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추 등 채소류도 작황 양호로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전·평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7~8월 삼겹살 상차림 비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25.7~8월 7,481원 → '26.7~8월 7,594원(전년비 1.5%↑, KAMIS)

농림축산식품부는 곧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도 소비자들이 농축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성수품 등 농축산물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급 확대와 할인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식품시장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성만	(044-201-2681)
		담당자	사무관	황수지	(044-201-2682)

